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199>

JCCT 2022-11-24

몽골유학생의 그릿과 학업지속의향의 관계에서 친숙도와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Mediating Effect of Familiarity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Study Continuation Intention of Mongolian International Students

제남주*, 박미라**, 윤지원***

Nam Joo Je*, Meera Park**, Jiwon Yoon***

요약 본 연구는 몽골유학생을 대상으로 그릿과 학업지속의향의 관계에서 친숙도와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전국 대학의 몽골유학생 124명을 대상으로 구글설문지를 활용하여 2021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그릿은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와 사회적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학업지속의향은 그릿,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 사회적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 그릿은 학업지속의향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와 사회적지지는 그릿과 학업지속의향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업지속의향을 높이기 위해 그릿을 높이고, 한국문화 친숙도와 사회적지지체계를 활용한 돕는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그릿, 매개효과, 사회적지지, 친숙도, 학업지속의향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iarity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academic continuity for Mongolian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from May 1 to June 30, 2021 on 124 Mongolian students from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using Google questionnaires. As a result of the study, gri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amiliarity and social support of Korean culture. The intention to continue school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grit, familiarity with Korean culture, and social support. Grit directl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cademic continuity, and familiarity with Korean culture and social suppor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academic continu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increase grit and seek counseling and education programs to help using Korean cultural familiarity and social support systems.

Key words : Continuation Intention, Familiarity, Grit, Mediating Effect, Social Support

*정회원,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제1저자)
**정회원,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참여저자)
***정회원, 창신대학교 카리스교양대학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9월 28일, 수정완료일: 2022년 10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1일

Received: September 28, 2022 / Revised: October 25, 2022
Accepted: November 1, 2022
***Corresponding Author: jwyoons@cs.ac.kr
Charis College of Liberal Arts, Changshim Univ, Korea

I. 서론

한국은 학령기 인구 감소, 대학정원의 충원어려움과 연계하여 해외 유학생 유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K-POP과 K-드라마의 붐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학습 부적응으로 힘들어하는 유학생의 수도 적지 않아[1] 대학과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대학을 대상으로 '유학 유치 및 관리 역량 인증제'를 실시하여 질 관리를 도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학생의 부적응과 중도탈락, 비자 제한에 따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2], 학업 실패를 겪는 유학생들의 학업을 지속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Slick & Lee [3]은 유학생들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데 그것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것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끝까지 해내고자 하는 힘으로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적고, 대학생활에 만족하며 학업적응 능력이 높으며 그것이 학업성취와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3]. 새로운 문화권에서 직접적으로 생활을 하게 될 때는 모국 문화에서 목표 문화의 새로운 문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충격과 함께 복잡한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4]. 그러므로 한국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생활 문화, 언어 표현 등의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 정도를 확인하여 학업지속의향과의 관련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지지는 학업지속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학업지속의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5]. 한국 내의 외국인 유학생 중 세 번째로 많은 유학생이 몽골유학생이지만[6]. 몽골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기 때문에 몽골유학생 대상의 다각도적 연구는 꼭 필요하다.

이에 몽골유학생의 그릿과 학업지속의향의 관계를 파악하고, 매개 변인으로써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와 사회적지지의 영향력을 확인하여 몽골유학생의 그릿과 학업지속의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몽골유학생의 그릿과 학업지속의향의 관계에 대한 한국문화의 친숙도와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는 전국 대학의 몽골유학생 중 설문 내용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가능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구글(google) 설문지를 통해 편의추출 하였다. 한국어교육원 연수생과 교환학생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구조방정식에서의 적절한 표본수를 산정할 때 Mitchell [7]은 관측변수 당 10²~20배가 적절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변수는 종속변수인 학업지속의향을 포함하여 12개이므로, 변수의 10-20배인 120~240개의 표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36명을 모집하였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12명을 제외하여 총 124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구조화된 구글(Google)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제 특성과 그릿,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 사회적지지, 학업지속의향을 측정하는 6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제 특성

연령, 성별, 종교, 학년, 성격, 대인관계,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능력 수준(TOPIK)의 8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 그릿(Grit)

그릿은 그릿-Original 척도와 그릿척도를 참고하여 노력의 지속성 및 흥미의 일관성 측정을 위해 Lee와 Kwon [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이며 하위영역으로 노력지속성(8문항), 흥미일관성(4문항)이며 부정문으로 진술된 문항은 역순으로 채점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79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9였다.

3)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는 선행연구 연구결과를 토대로 Jiang Chao[9]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이며 하위영역으로 경험적(5문항), 주관적(3문항), 정보적(3문항)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에 대한 친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Jiang Chao[9]의 연구에서 문화친숙도의 Cronbach's α 는 주관적 친숙도 .76, 정보적 친숙도 .87, 경험적 친숙도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이었다.

4)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선행연구의 도구를 Cho [10]가 수정한 사회적지지 척도(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이며 하위영역으로 정서적지지(7문항), 정보적지지(6문항), 물질적지지(6문항), 평가적지지(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게 느낀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를 더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ho [10]의 연구 Cronbach's α 는 정서적지지 .85, 정보적지지 .84, 물질적지지 .83, 평가적지지 .85였으며, 사회적지지 전체의 Cronbach's α 는 .96,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였다.

5) 학업지속의향

학업지속의향은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Gong [11]이 일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하부요인으로 학업 지속방해요인의 극복의지(3문항), 지속적인 학업의지(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Gong [1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69,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0이었다.

4. 윤리적 고려

C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CSIRB-R2021014)을 받았으며, 대상자의 자율성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연구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도중에 연구 참여를 포기할 수 있고, 중도포기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온라인 자료는 password가 있는 파일에 저장하여 연구자 외의 접근을 제한하고, 파일은 연구종료 후 3년 동안 보관한 후 삭제할 것이며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조사 자료는 숫자화 하여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비밀과 익명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5.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 수집은 IRB 승인 후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었다. 전국의 몽골유학생이 있는 대학의 부서 담당자에게 연구를 설명하고 허가를 득한 후 유학생 기숙사 게시판에 연구공고문을 공지하고, 연구공고문에 구글 설문지 URL을 게시하였다. 참여 희망자가 구글 설문지 URL에 접속하여, 몽골어로 번안된 자기 기입식 설문지로 이루어졌다. 구글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평균 20분이며, 작성 완료된 구글 설문지는 자동으로 수거되었다. 누락되거나 불안전하게 응답한 자료 12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24명(91.1%)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설문을 완료한 후에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6. 자료 분석

자료는 SPSS 25과 AMO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SPSS 2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각 변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고, 셋째, AMO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계가 유의한지 파악하고 이론적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경로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BC(Bias-Corrected Percentile)법을 활용하여, 총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의 유의미성을 각각 검증하였다.

- 1)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2) 그릿, 친숙도, 사회적지지, 학업지속의향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구하였다.
- 3) 그릿, 친숙도, 사회적지지, 학업지속의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 친숙도, 사회적지지, 학업지속의향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증과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e test을 실시하였다.
- 5) 그릿, 친숙도, 사회적지지, 학업지속의향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 6) 그릿과 학업지속의향의 관계에서 친숙도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Bootstrapping 기법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제 특성

대상자의 제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평균 22.08세이었으며, 20세 이하 29명(23.4%), 21-22세 53명(42.7%), 23-24세 25명(20.2%), 25세 이상 17명(13.7%)이었다. 성별은 남자 37명(29.8%), 여자 87명(70.2%)이었다. 종교는 '없음' 74명(59.7%), '있음' 50명(40.3%)이었다. 학년은 2학년이 47명(37.9%)으로 가장 많았다. 성격은 '혼합적'이 67명(54.0%)으로 가장 많았다. 대인관계 갈등경험은 '있음'이 75명(60.5%)이었다. 한국 거주기간은 '3-4년 미만'이 30명(24.2%)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어능력 수준은 '3-4급'이 56명(45.2%)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제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yr)	≤20	29(23.4)
	21-22	53(42.7)
	23-24	25(20.2)
	≥25	17(13.7)
	Mean±SD	22.08±2.22
Gender	Male	37(29.8)
	Female	87(70.2)
Religion	Yes	50(40.3)
	No	74(59.7)
Grade	1	25(20.2)
	2	47(37.9)
	3	24(19.4)
	4	28(22.6)
Character	Extrovert	40(32.3)
	Introvert	17(13.7)
	Mixed	67(54.0)
Conflict experience	No	49(32.3)
	Yes	75(60.5)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yr)	1-<2	25(20.2)
	2-<3	25(20.2)
	3-<4	30(24.2)
	4-<5	20(16.1)
	≥5	24(19.4)
Korean proficiency (degree)	1-2	26(21.0)
	3-4	56(45.2)
	5-6	42(33.9)

2. 연구변수의 기술적 통계

그릿,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 사회적지지, 학업지속의향의 점수의 분포와 정규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구하였다.

그릿은 3.67점(5점 만점)이었고,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는 3.83점(5점 만점), 사회적지지는 3.14점(5점 만점), 학업지속의향은 4.62점(5점 만점)으로 높았다. 그릿,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 사회적지지, 학업지속의향의 왜도와 첨도를 구한 결과 왜도는 -1.28~.24로 ±2 이내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첨도는 -.50~1.27로 ±7 이내의 값으로 나타나 변인들의 점수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한다[Table 2].

표 2. 연구변수의 기술적 통계
Table 2. Descriptive Analysis Results of Variables (n=124)

Variable	Range	Min	Max	Mean ±SD	Skew	Kurt
Grit	1-5	2.42	5.00	3.67±.53	.24	.14
Familiarity with Korean culture	1-5	2.18	5.00	3.83±.66	-.25	-.50
Social support	1-5	1.36	4.00	3.14±.51	-.45	.81
Intention to continue studying	1-5	3.20	5.00	4.62±.41	-1.28	1.27

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그릿,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 사회적지지, 학업지속의향

그릿은 대인관계 갈등경험($t=2.92, p=.004$)과 한국거주기간($F=3.46, p=.010$)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대인관계 갈등경험은 없음이 있음보다 높았다. 한국거주기간은 '1-2년 미만'과 '5년 이상'이 '2-3년 미만'보다 높았다.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는 성격($F=6.56, p=.002$)와 한국어 능력수준($F=4.49, p=.013$)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성격은 '외향적'이 '내성적'과 '혼합적'보다 높았다. 한국어 능력수준은 '5-6급'이 '1-2급'보다 높았다. 사회적지지는 성격($F=3.15, p=.047$)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외향적'이 '내성적'보다 높았다. 학업지속의향은 대인관계 갈등경험($t=2.64, p=.009$)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없음이 있음보다 높았다[Table 3].

4. 연구변수의 상관관계

학업지속의향은 그릿($r=.335, p<.001$), 한국문화에 대한

표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

Table 3. Differences in Attitudes related to variabl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124)

Characteristics	Categories	Grit			Familiarity with Korean culture			Social support			Intention to continue studying		
		Mean±SD	t/F	p (Scheffe)	Mean±SD	t/F	p (Scheffe)	Mean±SD	t/F	p (Scheffe)	Mean±SD	t/F	p (Scheffe)
Age(yr)	≤20	3.59±.59	.28	.839	3.70±.59	1.24	.298	3.17±.50	1.82	.147	4.62±.36	.11	.955
	21-22	3.68±.55			3.81±.70			3.04±.55			4.60±.40		
	23-24	3.72±.40			3.85±.71			3.16±.45			4.64±.44		
	≥25	3.68±.53			4.09±.55			3.36±.45			4.66±.52		
Gender	Male	3.69±.64	.24	.810	3.91±.60	.92	.357	3.21±.44	.97	.334	4.63±.40	.11	.915
	Female	3.66±.47			3.79±.68			3.11±.54			4.62±.42		
Religion	Yes	3.65±.48	-.62	.537	3.88±.66	1.02	.310	3.15±.53	.32	.750	4.59±.45	-1.20	.233
	No	3.71±.59			3.76±.66			3.12±.49			4.67±.34		
Grade	1	3.78±.60	.72	.543	3.64±.59	1.66	.181	3.20±.46	.92	.432	4.66±.37	1.04	.379
	2	3.59±.52			3.79±.71			3.16±.54			4.63±.39		
	3	3.68±.55			3.86±.60			2.99±.43			4.49±.52		
	4	3.69±.46			4.03±.67			3.17±.57			4.67±.38		
Character	Extroverta	3.76±.54	1.38	.255	4.13±.69	6.56	.002	3.27±.40	3.15	.047	4.65±.37	.83	.437
	Introvertb	3.51±.40			3.65±.56		a>b,c	2.92±.51		a>b	4.72±.27		
	Mixedc	3.66±.54			3.70±.61			3.11±.55			4.58±.46		
Conflict experience	No	3.84±.55	2.92	.004	3.80±.64	-.39	.700	3.20±.52	1.15	.252	4.74±.36	2.64	.009
	Yes	3.56±.48			3.85±.68			3.09±.51			4.54±.43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yr)	1-<2a	3.83±.53	3.46	.010	3.77±.60	.87	.482	3.14±.61	1.76	.141	4.70±.40	1.83	.128
	2-<3b	3.44±.44		a,e>b	3.70±.69			3.04±.54			4.55±.44		
	3-<4c	3.73±.51			3.87±.74			3.01±.48			4.49±.44		
	4-<5d	3.47±.50			4.05±.48			3.18±.42			4.64±.42		
	≥5e	3.84±.55			3.79±.73			3.35±.44			4.76±.32		
Korean proficiency (degree)	1-2a	3.78±.61	1.00	.373	3.56±.63	4.49	.013	3.26±.44	1.62	.202	4.75±.33	2.00	.140
	3-4b	3.60±.47			3.80±.66		c>a	3.06±.56			4.55±.44		
	5-6c	3.69±.54			4.04±.63			3.17±.48			4.63±.41		

친숙도($r=.320, p<.001$), 사회적지지($r=.353, p<.001$)와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그것은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r=.230, p=.010$), 사회적지지($r=.275, p=.002$)와 정적상관이 있었다.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는 사회적지지($r=.353, p<.001$)와 정적상관이 있었다[Table 4].

표 4. 변수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n=124)

Variable	1	2	3	4
Grit	1			
Familiarity with Korean culture	.230 (.010)	1		
Social support	.275 (.002)	.335 (<.001)	1	
Intention to continue studying	.335 (<.001)	.320 (<.001)	.353 (<.001)	1

5. 그것과 학업지속의향의 관계에서 친숙도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그릿과 학업지속의향의 관계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와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업지속의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인관계 갈등경험의 효과를 통제한 뒤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부스트래핑을 이용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와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Figure 1].

그릿과 학업지속의향의 관계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의 매개효과크기는 .050이었으며, 부스트래핑 검증한 결과 유의하였다($p=.006$). 그릿과 학업지속의향에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크기는 .060이었으며, 부스트래핑 검증한 결과 유의하였다($p=.005$). 그릿과 학업지속의향의 관계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와 사회적

지지에 의한 매개효과의 전체 크기는 .110이었으며 유의하였다($p=.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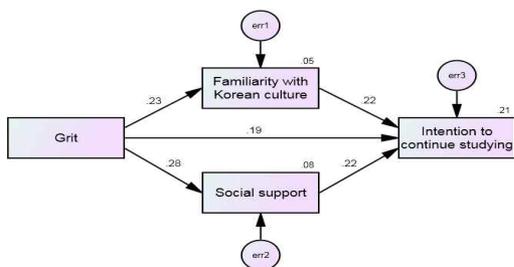


그림 1. 그릿과 학업지속의향의 관계에서 친숙도와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Figure 1.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iarity with Korean culture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intention to continue studying

표 5. 모델경로계수

Table 5. Model Path Coefficients (n=124)

Path	mediating effect size	p
Grit → Familiarity with Korean culture → Intention to continue studying	.050	.006
Grit → Social support → Intention to continue studying	.060	.005
Total	.110	.007

IV. 논 의

본 연구는 몽골유학생을 대상으로 그릿과 학업지속의향의 관계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와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릿은 3.67점이며(5점 만점) 선행연구[1]의 외국인(중국,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3.42점보다 높았다. 이는 몽골유학생은 타 국가의 유학생보다 학업성취를 포함한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인내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릿이 학업지속의향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유학생의 그릿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학생이 시련과 역경에서 열정과 인내로 극복하여 학업지속을 이룰 수 있게 돕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는 3.83점(5점 만점)이며 중간보다 높았다. 성격이 외향적이고 한국어 능력수준은 높을수록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는 높았다. 이는 외향적

이며 한국어에 능통할수록 한국문화에 대해 친숙해지는 어찌면 당연한 결과이다. 학업지속의향에 관계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몽골유학생의 대학적응 프로그램에 한국문화교육이 필요하다. 제한 몽골 유학생들의 대부분은 20-30대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한국생활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몽골 젊은이들은 서구의 음악과 자유분방한 옷을 즐겨 입는 편이며, 위아래로 5살 차이는 모두 친구로 지내고, 존대말을 쓰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한국의 엄격하게 나이를 따지며 옷차림과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적응하는데 있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4]. 이는 유학생들의 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은 한국생활(대학생활) 적응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13]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

사회적지지는 3.14점(5점 만점)으로 나타나 중간보다 낮았다. 그릿과 학업지속의향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강점을 인정하는 평가적 지지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보다 정서적 지지가 대학생 적응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선행연구[5]를 토대로 정보제공이나 학습능력에 대한 지지도 중요하지만 의사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정서적 지지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상담 및 프로그램을 통해 돕는 것이 중요하다.

몽골유학생의 학업지속의향을 높이기 위해 유학생이 시련과 역경에서 열정과 인내로 극복하여 학업지속을 높이기 위해 그릿을 높이고, 한국문화 친숙도와 사회적지지체계를 활용한 돕는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와 사회적지지 외에 학업지속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학생의 그릿함양도 필요하지만, 대학차원에서 그릿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 학업지속의향은 그릿,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 사회적지지와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그릿은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 사회적지지와 유의한 정적상관,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는 사회적지지와

정적상관이 있었다. 또한, 몽골유학생의 그릿과 학업지속의향의 관계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와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그릿은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와 사회적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학업지속의향은 그릿,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 사회적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 또한, 그릿이 학업지속의향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한국문화에 대한 친숙도와 사회적지지는 그릿과 학업지속의향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몽골유학생을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유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지속의향을 높이기 위한 대학 차원에서의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다른 요인들을 찾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Eunseung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Foreign Students' Resilience, Grit and Korean Academic Achievement, Koera Open Access Journals, Vol.31, No.4, pp. 251-274, 2020. DOI : <https://doi.org/10.18209/iakle.2020.31.4.251>
- [2] Jae-Eun Jon, "International Students' Drop-out Rate: Determining Factors at the Institutional Level", Global Studies Education, Vol.8, No.3, pp. 29-51, 2016, DOI : <https://doi.org/10.19037/agse.8.3.02>
- [3] Sheri N. Slick, Chang Seek Lee, "The Relative Levels of Grit and Their Relationship with Potential Dropping-Out and University Adjustment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Vol.12, No.8, pp.61-66, 2014, DOI : <https://doi.org/10.14400/JDC.2014.12.8.61>
- [4] Munkh, Undral, "Impact Acculturation Stress of the Mongolian Students on College life",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2016.
- [5] Boyoung Son, Hyojin Cho.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on the Types of College Adjustment of Foreign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1, No.5, pp. 903-918, 2020, DOI : <https://doi.org/10.22143/HSS21.11.5.66>
- [6] Ministry of Education, "Statistics on International Students from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Korea in 2018", 2018. <https://www.moe.go.kr/boar>
- [7] RJ Mitchell. "Path analysis: Pollination. In: Scheiner SM, Gurevitch J, editors. Design and analysis of ecological experiments", 2nd ed. New York, NY: Chapman and Hall, p.211-231, 1993
- [8] Jung Lim Lee, Dae Hoon Kwon,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Locus of Control, Mindset, Grit,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11, pp. 245-264, 2016. DOI : <https://doi.org/10.21509/KJYS.2016.11.23.11.245>
- [9] Jiang Chao, "The effect of familiarity with Korean culture on perception of traditional Korean dance: Focusing on Chinese students", Master's thesis, Hansei University, 2020.
- [10] M. S. Cho, "The Influence of Ego-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late Adolescence", Doctor's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2007
- [11] Namin Shin, "Transactional presence as a critical predictor of success in distance learning", Distance Education, Vol.24, No.1, pp. 69-86, 2003. DOI : <https://doi.org/10.1080/01587910303048>
- [12] Hye jin Gong, "The effect of how social support, academic continuous intention and career barrier affect Chinese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20.
- [13] M. Kwon, "The Perception of Culture and Korean Culture Learning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5, No.1, pp.247-258, 2021. DOI: <https://doi.org/10.46392/kjge.2021.15.1.247>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창신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창신-2021-048).